



## John 14

요한복음 14  
Tape #8082  
By Chuck Smith

John chapter fourteen. Jesus has finished what is commonly called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It was the Passover meal where He took the elements of the Passover meal and gave to them a total new interpretation.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통상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식사를 마쳤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였는데, 식사 중 예수님은 잔과 떡을 돌리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셨다.

The Passover meal was a memorial meal. The various things that they ate were to remind them of their experiences in Egypt. The bitter herbs, the salty water, the little pasty mixture of honey and nuts all were symbolic reminding them of the tears, the salty water. The bitter herbs reminding them of the bitter experiences of being slaves, forced labor for the Egyptians. The pasty mixture reminding them of the mortar that was used in the brick building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And so all of these things were reminders of Egypt and then God's deliverance out of Egypt. 유월절 식사는 절기 기념 식사였다. 그들이 섭취하는 각가지 음식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회상 시키는 것들이었다. 쓴 나물, 짠물, 꿀과 견과류를 섞어서 쓴 죽과 같은 음식 등이 있었는데, 짠물은 저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쓴 나물은 종살이의 쓴 경험과 애굽의 강제 노역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죽은 저들의 강제 노역 중 벽돌 만들기에서 사용되던 흙 반죽을 회상 시켰다. 이 모든 것들은 애굽 생활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을 기억 나게 하는 것이었다.

The meal was very symbolic but Jesus changed the symbolism. He made it more than just a memorial service of coming out of the bondage of Egypt. But now it is a new meaning, the broken bread is representing His body broken for us. Unleavened because He was without sin. The cup now is to remind us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t was shed for our sins. And so it's a whole new meaning that Jesus gave to the supper. 그 음식은 매우 상징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징을 바꿔 버리셨다. 그분은 그것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건을 기리는 의식(儀式) 이상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썩은 떡은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그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무교병은 그분의 죄 없는 삶을 나타내게 되었다. 잔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듯 그 저녁 식사에다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셨다.

Supper's over. He has predicted that one of the disciples is going to betray Him. And then He identifies that disciple as Judas Iscariot and He sends him on his nefarious task. Now Jesus begins to talk to His disciples and in the thirteenth chapter, verse thirty-three, Jesus said, "Little children, yet a little while I am with you. And you will seek me: and as I said to the Jews, Where I go, you cannot come; so now I say to you" (John 13:33). The same thing I said to the Jews I'm saying to you. I'm going to be with you for just a little while and then where I go, you cannot come. 저녁 식사가 끝났다. 그분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그 제자를 가롯 유다라고 지칭하셨으며 그가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두셨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1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할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너희에게도 하겠다. 내가 잠시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Jesus went on to say, "I'm going to give you a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nd by this love all the world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John 13:34,35). But Peter is stuck on this previous statement. I'm going to go away, like I told the Jews, and you can't come. And so Peter asked a question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a question/answer session with the disciples. It actually begins here in chapter

thirteen, it's after the dinner, Jesus is sharing things with them, it's a time of their questioning Jesus of the things that He is saying, and Jesus responds to their questions.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직전의 진술에만 마음이 고착되어 있었다: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일련의 질의/응답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여기 13장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께서는 식사 도중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셨다.

Having said that He's going to go away, in a little while they can't come where He is going, then Peter said unto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First question. Where are you going, Lord? And Jesus answered Him,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You will follow Me later. Peter questioned again,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And then Jesus predicted Peter's denial before the rooster would crow in the morning. 내가 잠시 동안은 더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질문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는 다시 질문을 하였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Jesus went on to say after predicting Peter's denial,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4:1):*

I believe that He is addressing this basically to Peter, knowing that Peter's heart was going to be severely troubled after he denied the Lord. But also knowing that the rest of the disciples are going to have troubled hearts when they see Him hanging on the cross and dying on the cross. Their expectations of the Messiah was far different from His being crucified. Suffering and being put to death. Their expectations was that He was going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mmediately, that they would be ruling and reigning with Him over the earth. And they had forsaken everything to follow Him and follow this concept of the Messiah.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믿는다. 주님을 부인한 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상당한 고민에 빠질 것임을 알고 주님은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임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하면 그들도 메시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좇는 한편 메시아에 대한 이런 관념을 견지(堅持)하고 있었다.

And so He is saying,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They are going to be facing troubling times and troubling experiences the next day as He will be put to death there on the cross. But He said,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날부터 저들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you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14:1).*

This is the first remedy for a troubled heart. Believe in Me. Trust in Me, Jesus said. And you know, that is truly a cure for a troubled heart. Whenever you're concerned or worried or you begin to be anxious over situations that you don't understand, you're confused, how wonderful it is just to put your trust in Jesus. He's saying, Just trust Me. Just trust Me.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은 이것이었다: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는 나를 신뢰하라 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고통에 빠진 마음에게 진정한 치유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쳐 안절

부절 할 때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처방이 될 것인지.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를 신뢰하기만 하라. 그저 나를 신뢰하라.

But that's oftentimes hard to do. If I don't understand what He is doing, it's hard to trust Him. Sometimes the things that He is doing don't make sense to me. And I find it difficult at times to trust Him. More or less like the fellow who was climbing, doing some mountain climbing and he lost his grip and started sliding down the mountain. And in desperation he grabbed out and got hold of a bush and found himself hanging over this great chasm a thousand feet down. And he was just hanging there. He said, Oh God, help me. And the Lord said, Just let go, son. He held on all the tighter and he said, Lord, I said help me. And He said, Trust Me, just let go, son. And he stopped and hauled and he finally said, Lord, help me! And the Lord said, Just trust Me, let go. He said, Is there anybody else up there? We don't understand what He's saying and sometimes we find it difficult just to trust Him. We'd like to have some other kind of advice maybe than what the Lord is directing for our lives. 그러나 가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내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불성설처럼 보일 때가 있다. 때때로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의사정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산에 오르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놓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등산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며 발 밑 수천 길 낭떠러지 위로 연결된 밧줄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한다. 그와 같은 자세로 베드로는 여기서 붙들고 늘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아들이야, 그냥 손을 놓으려무나. 그는 잡은 것을 더욱 더 강력히 부여잡으면서 말한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나이까? 그분이 대답하신다: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아들이야, 손을 놓아라. 그는 한 번 더 힘차게 끌어당기더니 단말마적인 절규를 한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손을 놓아라. 그가 부르짖는다: 거기 다른 사람 누구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끔 그분을 단순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조언을 구하게 될 것이다.

So He says,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14:2).*

Many abiding places. Just what is meant by this is a matter of theological discussion. I would like to just give you sort of a possibility. This isn't doctrine, this isn't, I'm not going to write any treatises on this, but I think that we have made a mistake in thinking of mansions like something in Beverly Hills with swimming pools and manicured yards and so forth. That's usually our idea of a mansion. Seven bedrooms, five baths and country size kitchen and this kind of thing.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놓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인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므로 나는 이 구절에 대해 무슨 논문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처소를 두고 비벌리 힐즈에 있는 맨션과 같은 것을 상상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수영장이 달리고 잘 손질된 잔디밭이 있는 거창한 건축물 말이다. 대개 맨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떠올린다. 침실이 7개에다가 욕실이 5개, 광장 같이 넓은 주방 등등이 있는 집 말이다.

I think that in our new bodies, we're not going to require sleep. So why would we need bedrooms? I don't think He's talking about some little cottage down the path or some big mansion down the path. Many abiding places. 우리가 새 몸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침실이 필요하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길 저편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라든가 아니면 길 이쪽 편에 있는 큰 맨션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14:2).*

Paul the apostle in his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chapter five said, "We know that when this earthly tent, the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is dissolved"—so he likens this body to a tent—"We know that when it is dissolved," or when this body goes back to dust, the component elements that make up our body,

“that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2 Corinthians 5:1). This building of God that he is speaking about is the new body that I’m going to have in heaven, the new heavenly body.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5:1). 그는 우리의 몸을 장막 집에 비유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갖게 될 새 몸을 가리킨다. 새로운 하늘의 몸인 것이다.

The Bible teaches that the real me is not this body, the real me is spirit and I live in this body which this present body is a tent. When you think of a tent, you never think of a permanent place to live. You think of a vacation and it’s good for a couple of weeks but oh, it’s so nice to get home again, to the conveniences of the house where you don’t have to heat the water on the stove in order to sponge bath, but you can get in and take a shower or just relax in the tub. So a tent is good for temporary, but you don’t think of it as permanent. You’d think you were abused if you’re husband moved you permanently into a tent. And you would be. 성경은 참된 나는 이 몸이 아니라 몸 안의 영이며 나는 장막과 같은 이 현재의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은 장막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영구적인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휴가도 한두 주는 좋지만 결국은, 목욕을 하기 위해 난로에다 물을 데울 필요가 없는 자기 집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언제든지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이 가장 좋다는 말이다. 장막도 한 동안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장막 안에서 살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천대를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진정 그럴 것이다.

So when this tent, temporary dwelling place for my spirit, goes back to dust, I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a new body. Not with all of the ancestral, genetic kinds of malfunctions that are passed down through the genes, or weaknesses or tendencies towards different things. But a new body,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Paul said, we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d from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not to be an unembodied spirit, just an essence floating in the universe some place, but we desire to be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for we realize that as long as we are living in these bodie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but we would choose rather to be absent from these bodies that we might be present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1,2,3,6,8). 하지만 내 영의 일시적 거처인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나에게서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 있다. 새 몸이 있다. 유전인자나 인간적 연약함 등을 통하여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전적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새로운 몸이 있다.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영구적으로 있다. 바울은 이 몸을 가진 우리는 종종 괴로워하며 몸의 제한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몸이 없는 영이 되어 우주를 떠도는 어떤 물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을 덧입고자 함이다.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위함이다 (고후 5: 1,2,3,6,8).

So just offering as a possibility the mansion that Jesus is talking about could be that glorious new body that He has gone to prepare for you,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So He said,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처소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러 가신 그 영광스러운 새 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말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이는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14:3).*

When God created these bodies, He created them out of the earth and He created them for the earth. The same seventeen elements that make up the dirt outside are the same seventeen elements that make up my body. Out of the earth but not only out of the earth but for the earth. Designed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planet earth. My body was designed to withstand fourteen pounds of pressure per square inch. My body was designed to take the oxygen out of this atmosphere, seventy-nine parts of Nitrogen, twenty parts of Oxygen, and one percent of trace types of gases, but my body is designed to live in this Nitrogen-

Oxygen balance of the atmosphere. You can be glad it isn't half oxygen and half nitrogen because it would actually slow down your whole body functions or you're thankful that it isn't twice as much Oxygen as it is Nitrogen. Nitrocox, if it were reversed and it was twenty of Nitrogen and seventy-nine Oxygen, you'd have sort of a laughing gas. We'd all go around in uncontrollable laughter. So God designed the body to exist in the environment that we have here on this planet.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으며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17개의 요소가 그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흙으로부터 만드셨으나 단순히 흙으로부터 만드셨을 뿐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셨다. 지구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몸을 조성하신 것이다. 내 몸은 평방인치 당 14파운드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내 몸은 대기로부터 산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졌다. 79%의 질소와 20%의 산소 그리고 1%의 기타 기체로 이뤄진 이 대기 속에서 내 몸은 산소와 질소가 지금처럼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 이 대기가 산소와 질소가 각각 절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소가 질소의 두 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대기의 배합 비율이 역전되어 질소가 20%이고 산소가 79%가 되었다면, 소기(笑氣) 즉 아산화(亞酸化)질소가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절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이 지구 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다.

But He didn't design it for the moon. Nor for Mars. Nor for Jupiter. Nor for any other place in the universe, as far as we can ascertain. "Of the earth, earthy." God wants to bring me into the heavenly scene. What is the environment there? I don't know. But no doubt superior to the environment here. I don't think there's any smog and pollution and He wants to bring me into that heavenly environment. We may not need oxygen in our new bodies. Just what it is, we don't know the environment of heaven but you see, God could outfit all of us with space suits, pressurized space suits with Nitrogen and Oxygen tanks on our back and maybe if the city of Jerusalem is only fourteen hundred miles squared, then the gravitational pull would be much less so we'd have to have real heavy boots so that we would stay on the surface and could keep a regular gait. And so it could have just outfitted us with space suits and let us go clomping around. But He's got a better plan. He's going to give you a new body designed for the environment of heaven but I think it's probably a universal design where you can go anywhere in the universe in the new body. And even "as we are borne in the image of the earth and have been earthy,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1 Corinthians 15:47,49). "A new body,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하나님은 우리 몸이 달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 화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다. 목성에 살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다. 우주의 다른 어느 혹성에 살도록 만드시지도 않았다.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구로부터 지구와 같은 재질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곳은 환경은 어떤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곳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일 것이다. 거기에는 매연이나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분은 그런 하늘 환경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신다.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산소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늘의 환경이 어떤 것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주복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기압에 견딜 수 있게 만든 옷을 입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등에는 질소와 산소 탱크가 메이게 될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 도성이 1,400 평방 마일이라고 한다면 중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므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땅을 딛고 서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복을 입어야 할 것이며 뒤뚱거리며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 환경에 맞게 고안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치수일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 새 몸을 입고 우주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7,49).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

So when Jesus said,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abiding places or mansion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I believe that when my spirit leaves this body, my spirit’s going to move in to that new body, that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There I’m going to be with my Lord forever in the glory of His kingdom and in the new body that God has created for me. So that’s a possibility and in reading all of the other theories on this, I think it’s as plausible as any I’ve read.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영이 이 몸을 떠나게 되면 내 영은 그 새 몸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아도 이것 이상으로 잘 이론을 갖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Now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Jesus is saying]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14:3);*

We’re getting to the answer of Peter’s question. There was a little digression there where Peter, the second question, Lord, why can’t I go with You? I’ll die for You. Jesus predicted his failure and denial and then encourages him.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And then He answers the first question, Where are You going? And Jesus is saying,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if I go and prepare that place, then I’m going to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 즉 ‘주여 왜 제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약간 케도를 벗어난 언급이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에 대해 예언하시고 난 다음 그를 이렇게 격려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첫 번째 질문 즉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시나이까? 에 대해 답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14:3).*

So that’s the answer then to Peter’s question. Jesus is going to prepare a place and He’ll come again and receive us unto Himself. And then Jesus said,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다: 예수께서는 장차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14:4).*

“I’m going to prepare a place. 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Now the second question comes from Thomas, 이제 도마가 두 번째로 질문을 제기한다.

*Thomas said un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14:5)?*

This is just a discussion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after dinner, sitting around the table there, or reclining around the table which was the posture in those days. And so here He is discussing these things. Lord,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and how can we know the way? If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to get there? 이것은 저녁 식사 후 식탁에 둘러 앉아 나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담 장면이다. 당시의 습관을 좇아 식탁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나눈 대화일 수도 있다. 그 논의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다.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Jesus said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14:6).*

The answer of Jesus to the question of Thomas, How can we know the way? Jesus said, I am the way. This is another one of those radical statements of Jesus that we have here in the gospel of John. Radical

statements that caused the world to hate us by saying that we're too narrow and bigoted. For the world would like to think that all roads lead to God. And no matter what path you take, we're all going to arrive at the same destination. 어떻게 우리가 그리로 가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니라. 이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과격한 발언이다. 이런 과격적인 발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고 너무 편협하다느니 고집불통 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를 증오하게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종착역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When we press the exclusiveness of Jesus, they get upset. They get angry even because we dare to say that Jesus is the only way to God. But when we say that, we're only saying what Jesus said. Jesus said this and many other radical things. Things that marked Him as a radical. Things that are so radical that you cannot ignore and you have to either accept them or reject them. They give you no neutral ground to stand on. 우리가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 저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라치면 저들은 금새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입장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과격한 말씀도 하셨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과격분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과격하여 그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언급들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여 어떤 중간 지대에 설 수가 없다.

Earlier on, He said, "I am the door to the sheepfold. Any man tries to enter in by any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ohn 10:7,8). He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8:12).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he that believeth i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he live: And if you live and believe in Me, you'll never die" (John 11:25,26).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if any man eats of Me, he will never hunger again" (John 6:35). He said, "Come unto Me, all ye that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He sai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And he who drinks of the water that I give, out of his innermost being there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ohn 7:37,38). All very radical statements. 앞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 10:7,8). 예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들도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요 8: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25,26). "내가 곧 생명의 뜻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 6:3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 7:37).

Statements that divide men into two categories. Those that believe and those that don't. When He said to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that believeth on Me, though he were dead, yet shall be live: and h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He then said, "Martha, do you believe this?" Either you believe it or you don't. And if you believe it, then you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If you don't believe it, you really don't have a basis for the hope of eternal life. Just your own imagination but no real basis for the hope. And so now again, He's making a radical statement that either marks Him as the Son of God or a deceiver, a fraud, a liar, or a lunatic.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fabulous statement. Believe it or not.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을 둘로 나뉘어지게 하였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하였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말씀하시고 난 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만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영생의 소망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상상해낸 것에 의지하게 될 뿐 영생의 소망에 대해 전혀 사실적이지 못한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 번 과격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거나 아니면 사기꾼으로 보거나 하게 할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험잡꾼이나 거짓말쟁이나 정신 이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결정을 해야만 한다.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n an age in which man had despaired of finding truth, the age of philosophy was dying, they had been searching for truth and now, a time of cynicism had arisen because the philosophers could not agree as to what is truth. So you remember when Jesus was facing Pilate, Pilate said very cynically to Jesus, “And what is truth?” Because they have become cynical and had despaired of finding truth. And Jesus is saying, “I am the truth, I am the way, and I am the life. An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Exclusive claims of Jesus. And we dare not try to broaden the path lest we be false prophets.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당시 사람들은 진리 찾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철학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어 왔으나, 이제 냉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철학자들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다: “그래 무엇이 진리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데 실패한 나머지 냉소주의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그 길을 우리가 임의로 확장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You remember in Matthew in the Sermon on the Mount, as Jesus said,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Broad is the way, and broad is the gate,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ere are many who go in thereat. Now beware [He said] of false prophets” (Matthew 7:13-15). That’s in context of telling you the way is narrow. “Beware of false prophets” who will tell you the way is broad. They come as “wolves in sheep’s clothing.” They oftentimes have Reverend in front of their names. And they try to broaden so God is love and He is the Father of all and just think good thoughts and get a good karma. You can be assured of a better life when you come around again. And so they’re trying to broaden the way but Jesus said, Look,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He said it. He made that claim. And you either believe it or not. 여러분은 또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마 7:13-15). 그 길이 좁을 것이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이 넓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다. 그들은 종종 자기 이름 앞에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니 그저 좋게만 생각하며 좋은 미래를 꿈꾸라고 가르칠 것이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보다 더 나은 내세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이 하신 주장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하여야 할 것이다.

You believe that you can get there on your own good works, your own good effort, your own sincerity in being religious. He said you can’t get to the Father but by Him. You can get to some god, for there are many gods, but you can’t get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Christ. And He said,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선행과 노력과 성실한 종교 생활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you had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and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you*



have seen Him (14:7).

That's quite a statement. You know Him, you've seen Him. And so Philip responds to that one, 이것은 대단한 진술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 빌립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

*Philip said,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we'll be satisfied.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and haven't you seen Me, Philip? [Don't you realize that]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14:8,9)? 만일 네가 나를 보았다면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In the book of Revelation, speaking of Jesus Christ, it says, "He is the true and faithful witness" (Jeremiah 42:5). What does that mean? He is a true and faithful witness of the Father. He came to represent the Father to man. To reveal the Father to man. "God, in times past spoke to our fathers in various ways through the prophets,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unto us through His own dear Son; who is the outshining of His glory" (Hebrews 1:1-3). So Jesus came to represent the Father, He was a true and faithful witness of what the Father is, and if you want to know what God is, look at Jesus.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구절이 나온다: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계 3:14). 이 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은 아버지를 참되고 충성 되게 증거하신 분이라는 말이다.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보이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해 보이기 위함이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1-3).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참되고 충성 되게 증거 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쳐다보면 될 것이다.

I think that oftentimes we have a wrong concept of God because we read of Jesus interceding for us and our advocate and all with the Father, but remember it was God who so loved you that He sent His own begotten Son. And we think of God as sort of aloof and reluctant to answer our prayers or to forgive us our sins and it's good that we have Jesus up there pleading for us. Actually, God was the One who sent Jesus in order to make a way by which you could come to the Father. And so "if you have seen Me," He said, "you have seen the Father." So He came and all the way through the book of John, He is insisting, I'm not doing My own will. I came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What I see the Father do, that is what I am doing. The works that I do, I don't do of Myself. The Father that dwells in Me, He is doing the work. And so all the way through He is declaring in the gospel of John that He is here to represent the Father. And He represents the Father in the things that He is saying. He represents the Father in the things that He is doing. So all of the love that He manifested, all of the healing of the sick bodies, all of the mending of the broken lives, this is the work of the Father, Jesus is declaring. "If you have seen Me, you've seen the Father."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종종 그릇된 개념을 갖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고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내용의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초연하게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거나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꺼리시는 분으로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강조하신 바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본 그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나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바는 그분이 이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든 사랑, 병자를 낫게 하신 모든 치유, 깨어진 인생들을 고쳐주신 일들,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분이 선언하신 말씀 그대로다: “만일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You’ve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And from henceforth,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Lord, just show us the Father and we’ll be satisfied. And so Jesus said, He that has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Believest thou not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peak unto you I don’t speak of myself: but the Father that dwelleth in me, he doeth the works (14:10).*

So both the words and the works were of the Father. I’ve spoken My Father’s words. I have done My Father’s works. 내 말과 내 행동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14:11).*

Again, throughout the gospel of John, He calls His works to bear witness that He was of God and He came from God. His divinity, He calls upon His work to bear witness that He is the Son of God.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가 증거 한다고 말씀하셨다.

When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preached to the people that gathered, he said, “Jesus of Nazareth, a man who was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that He did in the midst of you” (Acts 2:22). The miracles of Jesus were proof that He was of God. When Nicodemus came to Him at night, he said,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an do the works that You do, except God is with Him” (John 3:2). He recognized that. Here once more, Jesus is calling upon His works. If you can’t just believe My words, can’t believe what I tell you, then “believe Me for the works’ sake.” 오순절 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행 2:22).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인식했던 사람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행위를 불러 증거로 삼으셨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인하여는 나를 믿도록 하라.”

And then Jesus said something quite interesting and it has created a lot of theological debate,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believeth on m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and even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because I go unto my Father (14:12).*

That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he do” is a difficult passage. “The works that I do shall he do also,” that we can accept. When Luke wrote the Acts of the apostles, he begins it with these interesting words: “The former letter I wrote to you, O Theophilus, of all that Jesus began both to do and to teach” (Acts 1:1). From His baptism until the time He ascended into heaven. But after His ascension, now He through the apostles is working. So the Acts of the apostles gives you the continued work of Jesus through the lives of the apostles and the works that Jesus did, you’re going to find them doing.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라는 받아들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다.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는 이런 말로 시작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 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기록하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후, 이제 그분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속되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인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

They're going to be laying hands on the sick and the sick are going to be recovering. They're going to be praying for the lame and the lame will be walking. They're going to be praying for the dead and the dead are going to rise. “The works that I do shall ye do also.” The problem with the text is “greater works than these shall you do.” How can you do greater work than raising the dead? That's pretty awesome and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greater than raising the dead. So the interpretation often is greater as far as number is concerned because now, instead of just one man, you have all of the apostles going out and doing the works.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절름발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걷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는 말씀이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엄청난 일이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종종 숫자를 들어 해석을 확대하곤 했다. 지금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가 나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When Jesus was here, living in a body He took on limitations. Actually He was with God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and yet He humbled Himself and took on the form of man. In taking on the form of man, in coming into a body, He took upon Him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and one of the restrictions of the body is in this space continuum where my body feels this space where I'm standing right now. But as my body feels this space, it can't fill space down the street. Nor even the space where you are sitting. We each one take our space and as one of the characters, I need my space. But we each take up space. But the space where we're at, at that moment. That'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our body. I'm limited by this time space continuum because I'm in a material body. So you have the three dimensions.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서 사실 때는 제한성이 있으셨다. 그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몸의 제한성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다. 그 제한성 중의 하나가 지금 내 몸이 느끼고 있는 바 이 공간적인 제약이다. 내 몸이 여기서 느끼는 공간은 길 저편까지 포함시킬 수 없으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도 포함시킬 수가 없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또 한 인간으로서 나는 내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 각자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공간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일 뿐이다. 이는 모두 우리 몸의 제한성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나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차원적인 존재이다.

Jesus said, I'm going to go away but you're going to do greater works than what I did because you see, now they are going to be spread all over. Paul will be healing the sick in Lystra, causing the lame man to walk. While the apostles, others of them will be in Jerusalem. While Matthew will be heading out towards India and spreading out. So greater in that it's spreading further because it's not limited to just Jesus in His body but now Jesus is working through His apostles and thus, greater in its scope, in its outreach.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가겠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다. 장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며 절름발이로 하여금 걷게 할 것이다. 마태는 인도를 향하게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 이외의 제자들은 천하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점에서는 ‘보다 더 큰 일’인 것이다. 예수께서 한 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시니, 그 사역의 규모와 범위가 보다 더 커진 것이다.

Jesus never went beyond Palestine. He spent His own ministry right there in that one locality. He never saw Rome. He never saw the Metropolises of the world. He didn't see Alexandria. He was right there in that one locality. But when the disciples went out, they went to Rome. They went to Spain. They went to India. They went to Persia. They went to Asia. And they carried the Gospel and they were doing the same works that Jesus did. So greater in number but they did raise the dead but what's greater than raising the dead, it's same, whether it's a dead person in Lystra or the daughter of Jairus, it's still raising the dead. So greater works than these. And then, a tremendous promise. 예수께서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신 적이 없다. 그분은 그 한 지역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분은 로마에 가신 적도 없고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을 둘러보신 적도 없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 가보신 적도 없다. 그분은 그저 한 지역에만 계셨다. 그러나 흩어지자 사도들은 로마로 갔다. 그들은 스페인으로 갔다. 그들은 인도로 갔다. 페르시아로 갔다. 아시아로 갔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갔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양적인 면에서 확대된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루스드라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상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다.

*And whatsoever ye shall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any 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14:13,14).*

So Jesus isn't just giving you the credit card and saying, Go out and charge all you want. Because our nature is such that we would go out and just indulge ourselves with so many fleshly things that it would take our minds and thoughts off of the Lord. We'd be soon so carnal and caught up in material things. We wouldn't be thinking about Him. So notice, He said, "in My name." Can you ask for it in His name? Is it for His glory? Is it to bring honor to Him? And notice,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in the Son." That's the purpose of God giving it, in order that He might be glorified through the Son. It's to bring glory to Jesus Christ, not glory to you.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신용 카드를 주시면서 가서 아무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본성은 나아가 주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내 맘대로 마구 사 들일 것이다. 우리는 곧 세속적이 되고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주님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여기서 또 주의하라: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다.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So you can't go out and pray, God, make me famous, a famous movie star. Or God, do some thing for me like that. He's not talking about things to indulge upon your own flesh or your own desires. But those things that are for God's glory, you can have. And that assurance, "Whatever we ask in His name, that He will do that the Father might be glorified," but as things to glorify the Father. And then He said,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지여,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지여, 저를 위하여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마음껏 채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허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들만 응답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14:15).*

In John's first epistle, he's going to talk about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Jesus is going to speak some more about keeping His commandments here as we move down our text a bit. 예수님은 요한1서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하실 것이다.

What are His commandments? Back in the last chapter we read, “A new commandment I give un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3:34). That’s His commandment. When a lawyer came to Him and said,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He sai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mind and strength. And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In these two are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22:35-40). All summarized in these two. Love God first and supremely,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가? 앞의 장에 나온 구절을 다시 읽어 보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이것이 그분의 계명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5-40).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뭉뚱그려져 있느니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Now the Lord doesn’t say, Love yourself. He knows He doesn’t have to command you to do that. You do that automatically. Don’t deny it or remove all the mirrors out of your house. If we would take a photograph, wide angle shot of the whole congregation tonight, blow it up and put it on the wall, who’s the first one you’re going to look for? And you’re going to judge the picture on how you look. That’s a horrible picture. My eyes were closed when the flash went off. And so, it’s not this doctrine that we hear that the Lord is saying, Love yourself. It’s not a self-esteem doctrine. That’s a given. What is tough is to love my neighbor like I love myself. That’s what’s hard. I do love myself but to love my neighbor as myself, that takes the help and the grace of God. That doesn’t come naturally. 지금 주님은 네 자신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그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려거든 먼저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거울을 치우도록 하라. 오늘 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면, 앵글이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찍어 사진을 확대하여 벽에 붙여 놓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찾아보려 하겠는가? 여러분은 사진에 나온 자기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진의 호 불호를 판단하려 할 것이다. 플래시가 터질 때 내가 눈을 감았다면 그것은 내게 끔찍한 사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네 자신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들어 온 교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하라는 교리를 배운 적이 없다.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교리이다. 그에 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힘든 것이다. 우리는 내 자신은 힘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사랑은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These are His commandments. And so Jesus said,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14:16),*

Their hearts are troubled. He said He’s going away. They can’t come. They’ve learned to depend and trust in Him. And so to their troubled hearts, He speaks words of comfort. I’m going to pray, I’m going to the Father. You want to know where I’m going, I’m going to the Father.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I’m going to My Father’s house to prepare a place for you. So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give to you another Comforter.” The word Comforter, Parakletos, is literally, one who is called to come alongside. Kletos is to be called, and para is alongside or with. So one who is called alongside. We don’t have any really English word for this Parakletos, it is used in the Greek for, when you’re in trouble and you call for an attorney, you call for a Parakletos. When you’re needing help, you call for a Parakletos. You call for one to come alongside of you and the given is, to help you. I’m in need of help and so you’re calling for someone to come alongside to help you. 제자들은 심란한 상태에 있었다. 주님은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좇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 혼란스러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던지신 것이다. 내가 기도를 드리겠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원어 그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라 불리는 보혜사는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서 있는 자를 가리킨다. 클레토스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고, 파라는 곁에 또는 옆에 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아 곁으로 와서 있는 자 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 파라클레토스에 잘 어울리는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은 희랍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변호사를 부르거나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부르면 된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부르면 된다. 여러분 곁에 서서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경우, 여러분은 파라클레토스를 부를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청하게 될 것이다.

So I'll pray the Father and He will send someone to come alongside of you to help you.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그러면 그분은 너희 곁으로 다가와서 너희를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Even the Spirit of truth (14:17);*

He identifies it as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ruth, 그분은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 즉 진리의 영이라고 밝히셨다.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14:17):*

The world can't receive the Holy Spirit. “The natural man receiveth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Paul tells us,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And thus we come to a communication block when we try to share the things of Christ with the world, with worldly people, with people who only think in carnal ways. To try and share the truths of God with them is so difficult because the natural man just doesn'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and neither can he know them.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세상,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쓸 때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 14:17).

*but you know Him; and He dwells with you [para], He shall be in you (14:17).*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into your life. He's going to begin to indwell you. He said, 성령께서 장차 너희 삶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14:18).*

This word, comfort, is different.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that word in the Greek is “orphanos.”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not leave you desolate. I won't abandon you. I'm not going to desert you. “I will come to you.” The word actually is “without a father.” I will not leave you as an orphan, desert you. But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위로가 없다’는 표현은 그 함의(含意)가 좀 다르다. 이 말은 희랍어로 “고아”를 뜻하는 말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나는 너희를 황량한 데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방기(放棄)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세상은 사실상 “아비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으며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So I'm going to pray the Father, He'll send the Spirit, but I'm going to come to you.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Yet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14:19);*

He's going to be put in the tomb and hanging on the cross is the last the world is going to see Him.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but you see me (14:19):*

He's going to appear to His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He'll manifest the fact that He is resurrected by His appearances to the disciples. But He's not going to appear to the world. He's not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but only to the disciples. And so "A little while, and the world will see Me no more; but you see Me:" You will see Me, and 그분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이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현현 하심으로써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보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because I live, ye shall live also (14:19).*

What a glorious hope. Peter said, "Thanks be unto God through whom we have been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that is incorruptible, and undefiled, and fades not away, which is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being kept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1 Peter 1:3-5). We've got a living hope. Why? Because He lives, we too shall live.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벧전 1:3-5).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살아 계시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So "the world won't see Me anymore; but you'll see Me: and because I live, you too shall live." Our hope for eternal life rests upo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And that makes it more than a hope, it gives to us a living hope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것은 산 소망을 제공한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In that day ye sha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14:20).*

So here we have it all tied up. He's in the Father, the Father's in Him, and He is in us. And so we have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 we have the Father and the Son dwelling in us. 여기서 우리는 꿈쩍달쩍 할 수 없게 된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시며 그분은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며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다.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14:21),*

Again, the commandment is to love one another and to love God. "He who has My commandments,"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 등장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and keeps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that loveth me shall be loved of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manifest myself to him (14:21).*

That one who loves Him proves that love by obedience to the commandments. Walking in love for each other and walking in love for Him, we have the promise that He will come and manifest Himself to us. And so He is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disciples after His resurrection. For a period of forty days, He will be manifesting Himself to His disciples thirty-seven days, He was three days in the grave.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을 소유하게 된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총 40일 중에서 그분이 3일 동안은 무덤 속에 계시겠지만 나머지 37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보이실 것이다.

*Judas said unto him (14:22)*

He points out this isn't Iscariot. Judas Iscariot has already gone on out. He has left this little setting, he's out right now making a deal with the chief priests. He's out collecting his thirty pieces of silver and getting ready to lead the soldiers to the garden where he knows Jesus will be going when they leave the supper. He knows where in the garden Jesus would go to pray with His disciples. So "Judas saith unto Him," 요한은 이 유다가 가룟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룟 유다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그는 이 작은 무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으며 지금쯤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은화 30냥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것이며, 군사들을 인도하여 감람산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수께서 그리로 가실 것임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서서 늘 기도하시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을 한 사람은 가룟인이 아닌 유다였다.

*not Iscariot, Lord, how is it that You will manifest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14:22)?*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and one that we might wonder about. Why didn't Jesus after His resurrection go to the chief priest and say, Okay, now you had it. Why didn't He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이며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이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아,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지 않으셨을까?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If a man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s: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and make our abode with him (14:23).*

We'll come and dwell with him. He really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why He isn't going to manifest Himself to the world. And so that leaves it to conjecture and people have made many conjectures about that but that's all it is just conjecture and so as such, we'll leave that alone. 주님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만 말씀하실 뿐 '예수님, 왜 당신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보이려 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많은 억측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지 억측일 뿐이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He that loveth me not (14:24)*

He that loveth Me will keep My words. The same idea, he keeps My commandments, he keeps my words. As the result, the Father loves him, I will love him, and We will make our abode with him. Again,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We're going to come and we're going to make our abode with you. We'll love you. "He that loveth Me not,"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keepeth not my sayings: but the word that you hear is not mine, but the Father's which sent me (14:24).*

Again a testing that it isn't my words, I'm giving you the Father's words. 여기서 또 다시 시험의 말씀을 주신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니라.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being yet present with you. But the Comforter (14:25,26),* Coming back to this promise, "I will pray the Father, He'll give you another Parakletos." "But the Comforter,"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셨다. "그 보혜사 곧"

*which is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sha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all things to your remembrance, whatsoever I have said unto you (14:26).*

So the Comforter, the Holy Spirit, is going to come and He's going to be our instructor.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실 것이다.

Isn't it wonderful to be instructed by the Author of the book? It's to me such a blessing to have the Holy Spirit open up my understanding to a passage of scripture. Maybe I've wrestled with it, searched it out in the Greek and tried to really discover the meaning. What did He mean by that? And then suddenly the Holy Spirit just gives you understanding and teaches you. That's what Jesus said the Comforter would do. In fact, you call Him alongside of you. He's One who's called alongside. And so you call for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He begins to unfold the truth of God to your heart. 성경의 저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성령께서 나의 이해력을 여셔서 성경 내용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을 알기 위해 씨름하고 희랍어 원문을 살피고 하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럴 때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다. 보혜사는 바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실상, 여러분은 그분을 옆에 모시고 사는 셈이다. 여러분 그분은 불러 옆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펼쳐보이실 것이다.

So He'll also bring to your remembrance. After Jesus rose from the dead, then the disciples remembered how He had said unto them and they remembered all of these things after the Holy Spirit had come upon them. A lot of things that Jesus said went over their heads. Whenever He would talk about His death, it would just go right over their head. When He said He was going to rise again, it went right over their head. When He died, they thought it was all over. They thought that was the end.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 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은 그분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후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그들은 그냥 귓등으로 들어 넘겼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모두 귓등으로 들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When He was on the road to Emmaus with the two disciples the day He rose from the dead, He said, "O foolish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He had told them He was going to rise the third day and yet they were speaking disparagingly. He said, Why are you guys so sad? You a newcomer around here? You don't know what's been going 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re was a man named Jesus of Nazareth. He was real cool guy and He was going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manner of sicknesses and we had hop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We thought He was the Messiah. But they crucified Him. This is the third day. Some of the women this morning got hysterical, they thought they saw Him. They came and said that He was alive. They saw Him. But you know women are like that, they get hysterical. And then Jesus rebuked them. He said, O foolish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of the things that the prophets have said. Ought not the Messiah to have suffered and died? And He went on and expounded the scriptures to them and their hearts began to burn as He opened up the scriptures to them. (Luke 24:13-32). 그분이 살아나시던 날 그분은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셨다. 그분은 그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분은 '메시아가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분은 '너희가 왜 그리 슬픈 얼굴 빛을 띠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이곳에 처음 온 사람입니까? 라고 말했다. 당신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으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그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그 후 삼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몇몇 여인들이 이성을 잃었으나 봅니다.

자기들이 그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가 살아 계시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오, 이 미련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주셨다. 그분이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눅 24:13-32).

So the Holy Spirit then brought to their remembrance the things that he said. And of course, they recorded them for us in the gospels. And we have other quotations of Jesus in the book of Acts that aren't in the gospels as the Holy Spirit brought them to their remembrance. 바로 그 때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들을 복음서에다 기록해 두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온다. 성령께서 기억 나게 하심을 좇아 사도들이 거기다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

And then Jesus finally gives them this beautiful bequest of pea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평화의 유산을 남기셨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14:27).*

He comes back to this theme of the troubled hearts. I'm going to give you peace.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 at peace. Let your heart be at peace. I'm in control. I love you.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You're going to spend eternity with Me. I'm going to send the Holy Spirit. He's going to help you. He's going to open up the scriptures to you. He's going to remind you of the things that I have said. My Father and I, We will come to you. We will manifest ourselves and We will make our abode with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그분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떠올리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보일 것이며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You have heard that I said unto you, that I'm going away, and I'm coming again un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because I said, I'm going unto the Father: 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 (14: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요 14:28).

"If you loved Me," Jesus said, "you would have rejoiced." I've told you I'm going away,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because I told you I'm going to the Fathe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I think of our loved ones who walked with Jesus and are now gone to be with the Lord. Why do we weep? If we love them, we would rejoice because they've gone to the Father. That's what Jesus said, If you loved Me, you would have rejoiced. I told you I'm going to the Father. Why should you weep over that?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는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는가?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아버지께로 간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연유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울 필요가 무엇이나?

We weep because we're going to miss them. We weep because they have given such beautiful input into our lives, we're going to miss that. They've loved us. They've accepted us. And they've added so much to us,

enhanced our lives by their love and by their friendship. We're going to miss that. And thus, we sorrow.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그리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삶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이요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더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의 삶을 증진시켜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러워 하는 것이다.

But we don't sorrow as those who have no hope. We sorrow because we're thinking about ourselves and what we have lost. And so when we think of what they've gained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f we loved them we would rejoice. So often when a young person is killed in an accident, we say, "Oh what a shame. His whole life was in front of him." If he's walking with Jesus, his whole eternity is in front of him, not in the corruption of this world. He's not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e sorrows and the turmoils of this world. If you loved him, you would rejoice.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서러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서러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얻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일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한 젊은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었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이 얼마나 유감 된 일인가. 그가 살아갈 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말이야." 만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이 썩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My Father's greater than I." Again, a term that does create some theological debate. I believe that Jesus, more or less, pointed out that He was equal with the Father. He made such statements as, "I and the Father are one" (John 10:30). He said, "If you have seen Me, you have seen the Father" (John 14:9). And throughout the Bible, there is that teaching of the equality. "He who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Philippians 2:6). But now Jesus is in a body and in a body, He is experiencing the limitations of this body and in this state of being in a body, being subject to the will of the Father, having submitted Himself to the will of the Father, to come and dwell in a body in order that He might give His life for the sinners, in this limited condition of a human body,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체로 이런 의미라고 믿는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런 언급을 하신 적도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 10:30).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너희가 만일 나를 보았다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 14:9). 이런 동등성을 가르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등장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6).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몸 안에 계시다. 그 분은 몸 안에서 이 몸의 제한성을 겪고 계시다. 이런 몸의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복종하고 계시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다 굴복시키고 계시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몸 안에서 거하시는 것은, 인간 몸의 이 제한된 조건 하에 거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함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m going to the Father. In the next chapter, He's going to pray, "Father, glorify Me with the glory that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John 17:5). I want to return to that place and He did. But while He's in the limitations of a body, He said,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였을 것이다. 다음 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그분은 내가 그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위치로 되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이 몸의 한계 안에 계시실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다.

*And now 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14:29),*

I've told you in advance. I've prophesied to you what's going to take place.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가 장차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예언하였노라.

*that, when it is comes to pass, you might believe (14:29).*

That is really the purpose for prophesy in the scripture. It's one of the strongest apologetics that we have that the Bible is inspired by God. It is a proof that God dwells outside of time and space. The transcendent God outside of time and space so that He fills all and in all. Jesus by ascending to the Father is no longer limited by space to one area. So that He is with us here tonight. For He said,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Matthew 18:20). Jesus is with us here tonight. But He is also with the other congregations throughout this time zone who happen to be meeting right now and are gathered in His name. So He's not just limited here. Because He is here, it doesn't mean He can't be over in the other side of Santa Ana in another congregation. He is the transcendent Lord. He is again outside of the limitations of space and time in that eternal. So now He fills all, the whole world and He is in all. He hears the cries of those people who are crying out to Him over in Russia, over in China, over in Europe. All over the world, He's with them as He is with us.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예언의 진짜 목적이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변증해주는 것 중의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증거 중의 하나다.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채우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 가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한다. 그분이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오늘 밤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 동일한 시간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무리들과 함께 계시기도 한다. 그분은 여기에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무리와 함께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분은 초월적인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영원 속에서 시공의 제한성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다. 그분은 러시아, 중국, 유럽 등 각지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한다.

And so, I'm going back to the Father. Going back to the glory. Going back to that state of transcendency so that He might fill all and in all. And so I've told you before it comes to pass so that when it comes to pass, you might believe that the fulfillment of My predictions. You will know that I am indeed the Son of God, sent by God to redeem the world.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영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초월적인 지위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경우 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 때 너희는 참으로 내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Hereafter I'm not going to talk much with you (14:30):*

Chapter seventeen tells us of His talking with the Father. We have His final words in chapters fifteen and sixteen but they're getting ready now to leave the place of the supper. They've had the conversation and they're now going to walk from the place of the last supper which traditionally, they say is up on Mount Zion some place. We don't know that but it's traditional. And He is going to walk from there, no doubt walking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15장과 16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이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를 뜨려 하고 있다. 막 대화를 끝낸 후 저녁 식사 자리를 떠나 시온산 어딘가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통에 의하면 시온산이라고 한다.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신 후 분명히 성전 경내를 통과하실 것이다.

During the feast, the temple precincts were open twenty-four hours and they had big fires and all. The place was lit up. And so He's going to be walking through the temple precincts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s they're walking, talking to the disciples now and as they're on the way to the garden, but

“I’m not going to talk to you much anymore.”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성전 경내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온통 불을 밝혀 놓고 있었다. 모든 곳에 불을 켜 놓곤 하였다. 예수님은 성전 경내를 지나 겐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실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던 예수님은 동산으로 올라가기 직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for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and he hath nothing in me.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has commanded me, even so I do. Arise, and let us go (14:30,31).*

So the end of the supper, come on, let’s go. “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the obedience to the Father, to the will of the Father. Yes, He will be praying, Father, If it’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but yet submitting,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Your will be done.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He said. I’m going to prove that I love the Father by keeping His commandments. By submitting to Him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났으니, 함께 가자. “이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실 것이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Love is always proved by obedience to the desires of the one that you love. That’s the proof of love. Submitting, obeying the desires of the one that you love. Much of what is called love today really isn’t love. Much which is passed off for love isn’t really love. True love submits to the desires and the wishes of the one that you love.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He gave Me commandments.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 That’s the proof of it.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써 증명된다. 복종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분의 뜻에 따르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랑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주는 것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분의 뜻과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증명이니라.

This statement,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Jesus calls Satan the prince of this world. Originally, God created the earth and thus it belonged to Him. It was His by divine right of creation.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ness thereof” and all they that dwell therein (1 Corinthians 10:26). But when God created man, He gave to Adam dominion over the earth. Over the fish of the sea, the fowls of the air, every moving and creeping thing, I have given it to you, God said (Genesis 1:26). So now for a time the earth was man’s to take care of, to enjoy. But when Adam sinned, eating of the forbidden fruit, He submitted unto Satan’s will and Satan’s suggestion. And “know ye not, to whomever you yield yourselves servants to obey, his servants you become” (Romans 6:16). And so in yielding to Satan, Satan became the master of this world. And now Jesus addresses him as such,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th and he has nothing in Me.” 이런 성구가 있다: “이 세상 임금의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이 세상은 그분의 창조적 권능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고전 10:26). 거기 거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을 지배하는 권능을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그러므로 이제 한동안 땅은 사람이 향유하며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어 범죄 했을 때, 아담은 사단의 뜻과 사단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 6:16)? 아담이 사단에게 굴복하였을 때,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사단을 “이 세상에 올 임금”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At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 of Jesus, actually before He began ministering, right after He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river, Satan took Jesus, went in the wilderness and there fasted for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afterwards He was hungry. Satan came to Him and said, Command these stones to be made bread. And then he took Him to a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of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he said, All of these I will give to you and the glory of them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예수의 사역 초기에, 실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 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 사단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거기서 40주 40야를 금식한 후에 굶주리셨다. 그러자 사단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이 돌을 보고 명하여 떡이 되도록 하라 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분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말했다: 네가 나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

Jesus didn't say, You don't have them. They don't belong to you. They're mine. He acknowledged that Satan's offer was legitimate. He had come to redeem the world back to God. He had come to pay the price of redemption. Satan was saying, You don't have to take God's path to the cross.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I'll give it to you now. Just bow down and worship me. Same thing that Satan is saying to many people today, You don't have to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You can have immediate fulfillment, just worship me. And he holds out this attractive alternative of the world. And so Jesus calls him the prince of this world. He's coming but, He said, he has nothing in Me. Doesn't have anything on Me. I'm going the way of the Father. I'm going to pay the price of redemption. I'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and then I'll come and receive you unto Myself.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ve got a glorious future ahead of you. It's with Me eternally. 예수께서는 ‘저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 저것들은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저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사단의 제안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분은 그 속전을 내려고 오신 것이다. 사단의 말은 이런 의미였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너는 그 일을 즉시 성취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단지 내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라. 사단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너는 즉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 단지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라. 그 반대급부로 그는 이 세상을 넘겨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 예수님도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다: 그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나는 아버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구속의 값을 치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영구히 거하는 것이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hope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tonight. And for these words of comfort from Jesus to those with troubled hearts. Those who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Those that don't know about tomorrow. Lord, we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who has come alongside, who has been sent alongside of us to help us. We thank You, Lord, for Your presence with us. We thank You Lord for the way You've just manifested Yourself to us in so many special ways. Thank You Lord for Your peace, Your love. How blessed we are. Thank You, Father. Amen. 아버지여, 오늘 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신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